

3/27/22

설교 제목: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출애굽기 40 장 1-38 절

- (출 40: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출 40:2)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절관주** 출 12:2
- (출 40:3)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 (출 40:4)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 (출 40:5)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 (출 40:6)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 (출 40:7)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 (출 40:8)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 (출 40:9)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 (출 40:10)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 (출 40:11)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 (출 40:12)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 (출 40:13)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 (출 40:14)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겹옷을 입히고
- (출 40:15)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절관주** 민 25:13
- (출 40:16)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 (출 40:17)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 (출 40:18)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띠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출 40:19)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출 40:20)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출 40:21)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출 40:22)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출 40:23)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출 40:24)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출 40:25)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절관주** 출 25:37

(출 40:26)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출 40:27)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출 40:28)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출 40:29)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출 40:30)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출 40:31)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출 40:32)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출 40:33)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절관주** 출 27:9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민 9:15-23)

(출 40:34)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출 40:35)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출 40:36)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출 40:37)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출 40:38)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출애굽기 마지막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제작한 성막을 봉헌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히
임합니다.

성막은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성령의 내주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예표합니다.

1-16 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봉헌식의 규례를 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

17-33 절은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작한 성막 기구들을 하나님의 지시대로 배치하고
지시대로 봉헌식을 실행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으며

마지막 34-38 절은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불과 구름 형상으로 현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막 제작을
완성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돌 판을 주신 이래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성막 기구들을 놓을 위치 등을 포함해 성막을 언제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일일이
지시하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임재와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로만 계획되고 실행되는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성막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계시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르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막 식양은 범죄로 인해 쫓겨난 아담의 후예들이 어떻게 다시 여호와와 영광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을 세웁니다.

명하시길

(출 40: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 40:2)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명하신대로

(출 40:17)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출 40:18)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띠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출 40:19)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하시길

(출 40:3)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명하신대로

(출 40:20) 그는 또 증거궤를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출 40:21)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하시길

(출 40:4)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출 40:5)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명하신대로

(출 40:22)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출 40:23)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출 40:24)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출 40:25)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출 40:26)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출 40:27)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출 40:28)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명하시길

(출 40:6)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출 40:7)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출 40:8)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명하신대로

(출 40:29)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출 40:30)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출 40:31)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출 40:32)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출 40:33)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명하시길

(출 40:9)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출 40:10)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출 40:11)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출 40:12)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출 40:13)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출 40:14)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겹옷을 입히고

(출 40:15)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명하신대로

(출 40:16)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성막을 세우자 그의 영광이 성소에 충만히
현현합니다.

(출 40:34)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출 40:35)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출 40:36)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출 40:37)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출 40:38)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소에 충만했다는 것은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을 예표합니다.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소에 충만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분명 성소 밖에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교회에 충만할 것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은 그곳 120 문도들 각각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 그림자와 참 것의 차이입니다.

(행 2:3)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행 2:4)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신약 시대에 교회는 우리 자신입니다.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약 시대와 같이 성막이나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모임인 교회에 충만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9 장에서 모세는 축복하였고 40 장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은 성막 계시의 절정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는 임마누엘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고 최대의 복입니다.

(신 33:29)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성막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합니다.

모세의 성막에 충만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교회인 성도의 몸과 그들의 모임에 충만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날 완성될 것입니다.

(계 21:3)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계 21:4)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날, 그날을 고대하며 마라나타를 외쳐봅니다.